

# “김종필-오하라 야합 재판·조공외교”

민주, 징용해법 연일 맹공  
대일 굴욕외교대책위 출범  
“한일 군수지원협정 등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대일굴욕외교'를 비판하는 손팻대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차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고리로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친일 굴욕 외교' 프레임을 강화하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외교사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했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하라 야합의 재판”이라며 “부끄

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하지는 대로 다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조

공을 바치려 가는 명나라 시대 조선 왕의 모습처럼 비굴해 보인다”며 “그래서 ‘조공 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해법을 윤 대통령이 설명하고, 총리가 평가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 한다”며 “대통령이 일본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제징용 해법 대응을 위한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꾸렸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 김상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대책위에는 외교통일·국방·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문화체육관광·정무·기재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이름을 올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꾸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일방적 양보는 어떤 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고, 그 뒤를 이어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요구 사항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정말 걱정”이라며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 마디 항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 국힘 사무총장에 친윤 이철규...부총장에 박성민·배현진 임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무총장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재선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면서 총선 공천 때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들어가 실무 책임을 맡는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도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울산 중구)·배현진(서울 송파구)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내년 총선 공천에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한 자리는 강대식(대구 동구구) 의원으로 채워졌다. 초선인 강 의원은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인사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엔 친윤계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이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이날 인선 발표에는 포함

되지 않았다.

수석대변인은 조선의강민국(경남 진주을)·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다.

대변인은 원외인사인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김민수 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이다.

윤희석·김예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전당대회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민수 전 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도왔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 연구원장은 후보본부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의 후임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1개월 남았다.

김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정통한 능력을 갖춘 분, 또 그러면서 대통령합의 모양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선정이 진행될 당직 인사에서도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면밀히 점검”

윤 대통령, SVB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

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



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SVB 파산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거취 결단해야 vs 단결 우선”

측근 사망에 내홍 재점화  
비명 “지지율 하락 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이 대표 측근 인사의 사망 사건으로 재차 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언론 보도로 전해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명(비이재명)계 거취 압박이 다시금 거세지는 분위기다.

비명계 한 재선 의원은 13일 “지난주 초만 해도 전면적 당직 개편 정도면 분란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망 사건으로 당 지지율은 더 낮아질 게 뻔하다. 대표가 이제는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도 “유서에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 대표는 코너로 밀리고 밀려서 대표직을 그만두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실명으로 이 대표 ‘퇴진’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드문 상태다. 고인을 이용한 당내 정치라는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

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무도하지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이 대표도 주변을 더 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에 그쳤다.

다만, 그는 당내 화합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팬덤 정치는 상대방을 극단적 방식으로 공격한다. 정도를 벗어났다”며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훨씬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전씨 사망은 검찰의 폭압적 수사가 원인이라며 이 사안을 다시 이 대표 거취 문제로 연결하려는 비명계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사퇴 요구는 익명으로 1~2명이 제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전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데 심지어 의원총회에서 과반이(사퇴에) 찬성한다고 해도 그게 사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초선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번 사망 사건은 갑갑수사가 본질”이라며 “‘이재명으로 총선을 못 치른다’는 주장은 패배주의에 갇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당의 바로 직전 대선주자였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과연 당과 분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